해외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동향 조사

2026.6월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동향 조사

('26.6월, 글로벌금융중심지팀, 주채희 매니저)

1 서론

□ 조사 목적

○ 선진 금융중심지와 신흥 금융중심지 대표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선진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과 Luxembourg for Finance의 Ambitions 2030을 검토하고, 신흥 금융중심지의 육성 전략을 살펴보고자 AIFC 2026~2028 발전 전략을 조사

□ 검토 배경

○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중심지에서 추진 중인 미래 전략의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과 신흥 금융중심지 대두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 부산 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해외를 참고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중요

□ 조사 범위

○ 사례 별로 중점 추진 분야와 세부 조치·목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영국 사례에서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 조성, 영국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십 활용, 혁신 수용 및 핀테크 리더십 활용, 개인 투자 문화 조성 및 자본 시장을 통한 번영 실현, 금융서비스 분야 역량 및 인재 기반 구축 분야 중심으로 검토

- 룩셈부르크 사례는 안정성과 기회의 연결, 보다 경쟁력 있는 유럽의 실현, 미래 금융 설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본 흐름 조성의 4대 축을 중심으로 검토

- AIFC 사례는 AIFC 설립에 관한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규정된 AIFC의 5가지 목표 중심으로 목표별 우선 추진 분야를 확인

2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1](영국)

□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 '25.7월 영국 정부가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출간

○ 주요 내용

- '35년까지 영국을 금융서비스 기업들이 투자·혁신·성장하고 전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고자 10년간의 정책 방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할 조치들을 제시

<표 1 : 영국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

분야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 조성
세부 방향	○ 규제 부담 완화 및 규제를 통한 성장과 경쟁력 지원 -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OS)*를 개혁해 준 규제기관처럼 기능하는 현재 상황을 종식하고 제도 도입 취지(단순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서비스)에 맞게 정비 : FOS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FOS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해석에 관해 금융감독청 견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Financial Ombudsman Service : 금융회사-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 고위관리자 및 인증 제도* 간소화 : 고위관리자 선임 승인 처리기한을 단축(3개월→2개월)하는 등 간소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전반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 ○ 은행 자본규제 체계 - MREL*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 : MREL 요건의 적용과 관련된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이전 방식의 정리 전략이 적용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MREL 요건을 최저 자본 요건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할 계획 * Minimum requirements for own funds and eligible liabilities : 정리시 손실 흡수를 위하여 MREL 규제 적용 대상 은행들에 대해 일정 규모의 자본과 적격 부채를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링펜싱* 제도 개혁 : 재무부는 링펜싱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토는 링펜싱 적용 방식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 * 링펜스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소매금융과 투자금융 업무를 분리하도록 함 ○ 5대 우선 성장 기회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에 집중 * 자산운용·도매금융, 보험·재보험, 지속가능금융, 핀테크(혁신 수용 및 핀테크리더십 활용 참조), 소매금융 포함 자본시장(개인 투자 문화 조성 및 자본 시장을 통한 번영 실현 참조) - 자산운용·도매금융 :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규정 간소화, 금융감독청에게 주로 도매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소비자 의무 적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보고하도록 요청, 도매금융시장 디지털화에 대한 비전 제시

1) UK Government,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2025.

	- 보험·재보험 : 보험사에 적용되는 상품 거버넌스 및 공정가치 요건 완화, 보다 유연한 위험 전환 제도(보험연계증권 제도 개편 포함)에 대한 의견 수렴, 캡티브보험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마련 - 지속가능금융 : 영국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등에 대한 향후 조치 관련 의견 수렴, 영란은행 산하 금융정책위원회와 건전성규제위원회가 정부의 넷제로 전환 접근을 지원하도록 보장, ESG 평가기관 규제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상충 문제 해결
분야	**영국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십 활용**
세부 방향	o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 - 선진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신흥 시장과의 연계 강화 o 외국기업의 영국 투자 및 교역 촉진 - Office for Investment: Financial Services 설립(국제 투자자 대상 컨시어지서비스) o 영국 국제금융중심지를 글로벌 공공재로 홍보하여 미래 금융서비스 기회 선점 - 전환금융 시장 육성(자발적 자연·탄소시장 성장 지원)
분야	**혁신 수용 및 핀테크 리더십 활용**
세부 방향	o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지원 - UKRI(UK Research and Innovation)의 R&D 자금을 중점 분야(금융서비스 포함)에 집중 지원, 데이터 공유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투자 o 금융 서비스 기업의 혁신 여건 조성 - 오픈 파이낸스·스마트데이터 추진 가속화, 지급 결제 관련 법령 정비, 디지털 신원 확인의 광범위한 도입
분야	**개인 투자 문화 조성 및 자본 시장을 통한 번영 실현**
세부 방향	o 개인들의 투자 위험 회피 성향 완화 - '26년 ISA 시즌(1월~4월 5일)까지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청과 협력, 업계 주도의 개인 투자 홍보 캠페인을 지원 o 자본 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개편된 투자설명서 제도 시행으로 상장과 자본 조달 절차 간소화, PISCES* 도입 * Private Intermittent Securities and Capital Exchange System : 비상장주식을 위한 새로운 거래소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 역량 및 인재 기반 구축**
세부 방향	o 글로벌 인재 유치 - 고급 인재를 위한 비자의 접근성 확대, 비자 절차 간소화, 글로벌 인재 태스크포스 o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 - FSSC*의 금융 서비스 부문 역량 협약 개발을 지원, 청년 역량 개발 지원 * Financial Services Skills Commission

자료 :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UK Government)

- 이외에 영국 각지 11개* 금융서비스 클러스터의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

* Edinburgh City Region, Glasgow City Region, Belfast City Region, West Yorkshire, Greater Manchester, Cheshire, Norwich and East Norfolk, West Midlands, Greater London, Cardiff City Region, South of England(Swindon, Brighton, Bournemouth, East Surrey)

□ 시사점

○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전략 설정

- 영국 재무부는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 수립을 위해 금융서비스 부문(신용협동조합·자산운용사·투자은행 등)과 학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듣고자 '24년 의견 수렴(Call for Evidence)을 진행하였음

- 금융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할 방안 제시

- 영국 정부는 전략 실행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성과 및 정책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8개 평가 지표(표 2)를 선정

  * 향후 10년간 금융서비스 순수출 연평균 성장률('25~'35년 2.7% 목표)을 지난 10년간의 금융서비스 순수출 연평균 성장률('14~'24년 1.37%)의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

- 이를 통해 전략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표 2 : 영국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의 이행 점검>

지향점	평가 지표(측정 방식)
금융서비스 부문이 영국 산출 성장에 긍정적 기여	**금융서비스 부문의 실질 산출** (해당 부문의 총부가가치)
글로벌 금융서비스 강국의 위상을 발전시켜서 영국 기업이 세계에 금융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금융서비스 순수출 성장** (금융서비스 순수출가치의 실질 변화)
	글로벌 금융서비스 수출 점유율 유지 (글로벌 금융서비스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금융서비스 부문이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영국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	**금융서비스 부문 생산성** (해당 부문의 노동시간당 실질 산출 변화)
	실질임금 성장을 동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전반의 금융서비스 일자리 실질임금 증가)
투자 중심적 문화를 조성해 기업이 성장하고 가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접근성** (기업금융 조달 순액)
	가계의 투자 기회 참여 (가계 자산 중 현금 이외 금융 자산의 비중)
국가 전역의 지역 금융서비스 클러스터 육성	**지역 금융서비스 클러스터의 산출 성장** (지역 클러스터 내 실질 총부가가치 산출)

자료 :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UK Government)

ㅇ 규제 환경의 중요성

- 영국 정부는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분야의 하나로 제시하며 금융서비스 발전과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규제 환경을 중시하고 있음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19년 특구로 지정된 이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부산 금융산업의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Ambitions 2030: Shaping Finance for our Future[2] (룩셈부르크)

□ Ambitions 2030: Shaping Finance for our Future

ㅇ '25.1월 룩셈부르크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기관인 Luxembourg for Finance가 'Ambitions 2030: Shaping Finance for our Futur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발표

ㅇ 주요 내용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룩셈부르크는 국경 간 금융, 혁신,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가진 기존의 강점을 활용해 선도적인 금융중심지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며, 이하의 4대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의 금융 분야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음

<표 3 : 2030 목표(4대축 중심)>

Pillar1	안정성과 기회의 연결
세부 목표	ㅇ 글로벌 운영을 위한 안정적 중심지 - 글로벌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으로서 위상 강조, 기업금융 중심지 역할 강화, 캡티브 재보험·손해보험 분야 유럽 내 선호지로서의 위치 공고화, 발행·상장 등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역할 강화, 국제 증권화 선도지 위상 강조 ㅇ 미래 부의 보전 - 자산 관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수단을 개발·확대하며, 국경 간 생명보험 분야 유럽 선도자 역할을 강화하고 프라이빗뱅킹·패밀리오피스·자산관리 활동을 유치 ㅇ 글로벌 금융을 대변하는 목소리 - 글로벌 금융기관의 EU 거점으로 자리잡고, 유럽과 세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유럽 금융기관의 글로벌 전략을 지원
Pillar2	보다 경쟁력 있는 유럽을 실현
세부 목표	ㅇ SIU(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의 촉진자 * 가계의 저축 자금을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EU의 전략

2) Luxembourg for Finance, Ambitions 2030: Shaping Finance for our Future, 2025, https://lff.foleon.com/brochures/ambitions-2030/.

	- SIU 촉진자가 되고, EU와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유럽 증권화 시장 재도약에 기여하고, 범유럽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유럽 기업의 자금조달 원을 확대 o 장기투자 촉진 - ELTIF* 부문에서의 리더십 강화, 펀드·보험 허브로 축적한 전문성을 발전시켜 유럽 인구 문제 해결 지원, 국경 간 금융 전문성 활용해 범유럽 연금펀드상품 성과 개선에 기여 *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o 유럽 사모자산 확대를 위한 길을 열다 - 유럽 사모 자산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대체투자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
Pillar3	**미래의 금융을 설계**
세부 목표	o 가치사슬 고도화 - 정부의 경쟁력 강화 의제와 사모투자·벤처 캐피탈 등의 허브로서 룩셈부르크의 커지는 역할을 기반으로 미들 오피스·프론트 오피스 업무를 유치 o 글로벌 인재에 투자 - 룩셈부르크를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 허브로 발전시키고, 지속적 투자로 미래 대비 인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금융 전문성 개발 및 글로벌 경제 전환에 부합하는 혁신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 o 금융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 기반 강화 - 첨단기술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 펀드테크와 레그테크 혁신을 추진, AI를 수용하고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 등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중심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금융 기술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 o 미래 금융 설계 - 룩셈부르크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입법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및 투자펀드 토큰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암호자산 업체의 선호 입지로 자리 잡으며, 임베디드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룩셈부르크를 유럽 내 액티브 ETF 허브로 구축
Pillar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본의 흐름 조성**
세부 목표	o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 동원 - 지속가능투자 글로벌 중심지 역할 확대, 민간자본 동원을 위해 금융권과 협력 강화, 지속가능·임팩트 투자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혼합금융 확대해 글로벌 임팩트 창출 위한 혁신적 해법을 개발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 o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혁신 촉진 -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명성·책임성 개선으로 지속가능금융을 가속화하고, ESG 정보 활용 역량을 고도화하며, 국제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 o 녹색을 넘어 임팩트로 * 임팩트 금융 : 재무적 이익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함께 추구 -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의 규모 확대하고, 젠더파이낸스·생물다양성·전환금융 등 신규 유망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출범을 지원하며, 새로운 지속가능금융 상품 개발

자료 : Ambitions 2030: Shaping Finance for our Future(Luxembourg for Finance)

□ 시사점

○ 기존에 경쟁 우위를 확보한 분야를 강화

- ESG 펀드 분야 강점과 LGX*를 기반으로 룩셈부르크가 지속가능금융 선도국 입지를 구축해온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본 흐름 조성을 2030 목표로 제시하는 등 기존에 경쟁 우위를 확보한 분야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 Luxembourg Green Exchange

- 이는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시 기존에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점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부산 역시 기존의 정책금융 인프라와 해양금융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더해 부산의 산업·금융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니치마켓을 발굴하고 이를 부산 금융중심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Gateway로서의 역할

- Luxembourg for Finance가 보다 경쟁력 있는 유럽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유럽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본의 관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금융중심지의 관문 기능이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시장·제도적 인프라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줌

- 부산은 지리적으로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물류·해양 기반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자본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경우 물리적 관문과 시장·제도적 관문이 결합된 금융중심지로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

4 AIFC* 2026~2028 발전 전략[3] (카자흐스탄)

*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 AIFC 2026~2028 발전 전략(Development Strategy for 2026~2028)

○ AIFC 당국은 AIFC관리위원회가 센터의 '26~'28년 발전 전략을 승인하였다고 발표('26.3월)

3) AIFC authority, 'AIFC Management Council Approves Development Strategy for 2026-2028', 2026.03.17., https://aifc.kz/news/aifc-management-council-approves-development-strategy-for-2026-2028/.

○ 주요 내용

- AIFC 설립에 관한 카자흐스탄 헌법에서 규정된 AIFC의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발전을 추진할 분야를 설정

<표 4 : AIFC 2026~2028 발전 전략>

목표	**금융 서비스 분야 투자 환경을 조성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
우선 추진 분야	○ 투자 매력 강화 - 구조화 투자 유치 - 국제 개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목표	**카자흐스탄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국제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우선 추진 분야	○ 주식자본시장 발전 및 역내 상장 허브로서의 지위 강화 ○ 채권자본시장 강화(기관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자 기반 확대, 소매 부문 활성화) ○ 금융시장 인프라 확충(거래 후 서비스 강화, 국제 연결 강화, 지역 협력 확대) ○ 금융상품 다변화(구조화 상품, ETF, 지속가능금융 솔루션 등)
목표	**보험시장·은행서비스·이슬람금융·금융기술·전자상거래 및 혁신프로젝트 발전**
우선 추진 분야	○ 핵심 상품 개발(자산운용, 지속가능금융) ○ 성장 상품 - AIFC 탄소 플랫폼은 탄소 가격 메커니즘 개발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기후 중심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 - 이슬람 금융(규제체계 추가 정비, 상품 확대, 금융기관 유치) - 디지털 자산(테크허브와 핀테크랩을 통해 규제 및 혁신 인프라 구축) ○ 신규 상품 개발(AIFC 항공금융 허브 구축 등) ○ 혁신 이니셔티브(자산 토큰화, AIFC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확대)
목표	**글로벌 모범 사례에 근거해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발전**
우선 추진 분야	○ 투자펀드의 운용자산 규모 확대 ○ 규제 체계 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 ○ 센터에서 영업하는 인가 금융회사 숫자 증대
목표	**금융중심지로서의 국제적 인정 획득**
우선 추진 분야	○ 국제 브랜드 강화 및 글로벌 입지 확대 - 아스타나 파이낸스 데이즈 포럼, AIFC 커넥트 국제 행사 시리즈 등 -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신흥 금융중심지에 자문

자료 : AIFC Management Council Approves Development Strategy for 2026-2028(AIFC authority)

□ 시사점

○ 권역 내 위상 강화를 추진

- AIFC가 중앙아시아에 기후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 역내 상장 허브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 권역의 금융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됨

- 부산은 동남권 제조업 기반과 해양 물류 거점으로서의 입지, 북극항로 대두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해양금융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디지털·파생·지속가능금융 관련 기업 유치와 연결하여 아시아 금융산업 내 부산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ㅇ 금융중심지 목표의 제도적 지속성 확보

- AIFC는 설립 근거법*에 금융센터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육성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 이와 같이 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 일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중장기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결론

□ 사례별 시사점 요약

ㅇ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영국)

- 영국 정부는 전략 수립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략을 제시한 후 그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각종 지표를 제시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성과 관리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ㅇ Ambitions 2030(룩셈부르크)

- 기존에 보유한 지속가능금융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본 흐름 조성을 2030 목표로 제시하는 등 기존 비교 우위를 강화해갈 예정이며, 유럽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본의 관문 역할을 강조

- 이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시 기존의 강점인 정책금융 인프라와 해양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산이 지리적 관문을 넘어 금융시장의 관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ㅇ AIFC 2026~2028 발전 전략(카자흐스탄)

- AIFC는 중앙아시아 권역 금융 허브로 확고히 자리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립 근거법에 금융센터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육성 방향의 지속성을 확보

- 부산 역시 해양·디지털·파생·지속가능금융 관련 기업을 유치해 아시아 금융산업 내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시사점 도출

ㅇ 인재 확보와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

- 영국은 금융서비스 분야 역량 및 인재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Ambitions 2030도 글로벌 인재에 대한 투자를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AIFC 역시 AIFC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 해외 유수 금융 분야 대학·경영 대학원과 연계한 학위 과정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체계적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ㅇ 전문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

- 영국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에서 법률 서비스 등의 전문 서비스업을 자국의 매력으로 제시했고, AIFC 역시 전략 목표 차원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에 근거한 금융 및 전문서비스 발전을 언급하는 등 해외 금융중심지들은 고도화된 전문서비스 생태계를 금융중심지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더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속에서 의결권 자문서비스가 주목받고 지속가능성 강조로 ESG 평가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산도 전문서비스 분야별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지속가능금융과 디지털금융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

- 앞서 검토한 세 전략(영국, 룩셈부르크, AIFC)을 통해 살펴볼 때 지속가능금융과 디지털금융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3~’25년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4대 추진과제 중 해양·파생금융 혁신의 세부 과제로 녹색 금융 성장기반 구축과 녹색 금융 중심 파생금융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고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이 4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ㅇ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4]
- 부산시는 ’23년 7월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23~’25년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정책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도약, 해양·파생금융 혁신의 4대 추진과제로 구성

- 해양산업과 동남권 기반 산업의 친환경 전환 수요를 부산 금융 산업의 기회로 연결하고, 해양·파생·디지털·지속가능금융을 융합한 부산형 금융모델의 구축을 검토하는 등 해외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동시에 부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ㅇ 장기적인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을 제시

- 영국의 금융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은 10년간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였고 AIFC 발전 전략은 3년 계획이나 헌법상 규정된 AIFC의 목표를 기반으로 수립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해외 금융중심지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 국내의 경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 · 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 · 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 · 지원

4) 부산광역시, ‘부산시, 국제적인 금융도시 기반 구축 위한「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발표’, 2023.07.20..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금융관련 연구·학술 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5.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는 기존 법률 및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체계를 활용하되 해양금융, 디지털금융 등의 특화 기능을 중장기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정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